

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한국 2Q GDP

예상 상회; 내년 2Q까지 한은 3회 추가 인상 전망 유지

- 2Q 성장률 전기 대비 0.6%로 당사 및 금융시장 예상 상회. 글로벌 AI 투자의 긍정적 효과가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난을 능가. 명목 GDP 전년 대비 19.3% 추정
- '26년 성장률 전망 기존 3.4%에서 3.5%로 상향하며, '27년은 시장 예상(2.2%)을 상회하는 2.8% 유지. 내년 2Q까지 한은 추가 3회 인상 전망 유지

'26년 2Q 한국의 GDP는 전기 대비 0.6%(전년 대비 3.7%)를 기록하며, 금융시장 예상(0.4%, Bloomberg)과 당사 전망(-0.2%)을 상회했다(이하 전기 대비). 이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가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난의 부정적인 영향을 능가했기 때문이다.

2Q 수출은 반도체, 기계 및 장비를 등을 중심으로 1.4% 증가하며 정유, 화학제품 등의 수출 감소를 상쇄했다. 아울러,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으로 설비 투자(0.2%)와 건설 투자(-0.2%)는 고유가의 충격과 1Q의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. 특히, 지식생산물 투자가 3.3% 증가했는데, 국내의 AI 투자 확대 및 구독 서비스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. 반면, 고유가의 충격은 1Q에 이은 재고 투자의 감소(GDP 대비 -0.2%p), 민간 소비의 둔화(0.6% → 0.4%) 등으로 이어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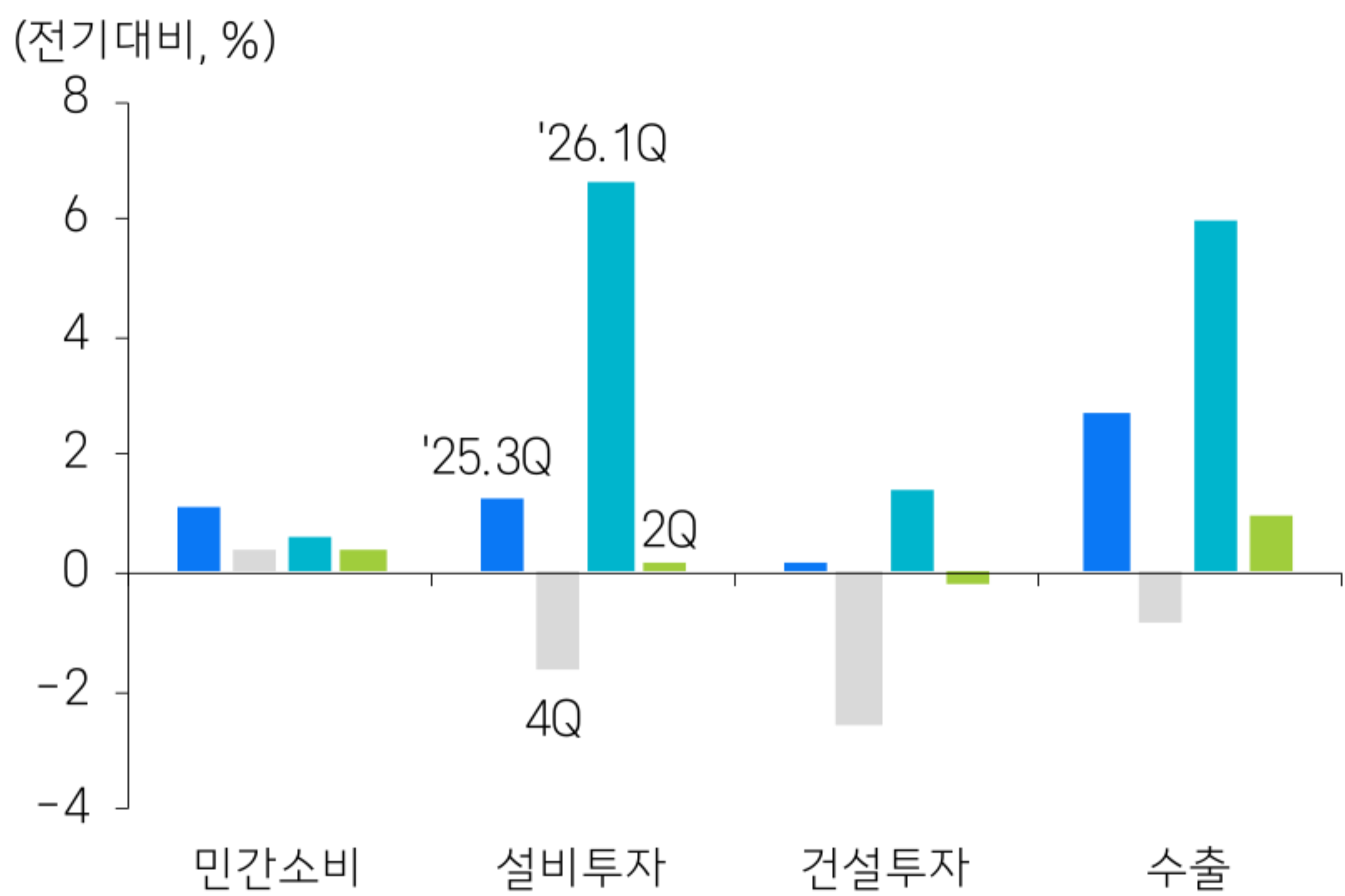
한편, 실질 국내소득(GDI)은 3.1%(전년 대비 15.6%)를 기록했는데, 이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(41.8%, 물량은 2.9%)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영업 잉여가 1Q에 이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. 그에 따라 2Q 한국의 명목 GDP는 4.2%(전년 대비 19.3%) 내외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'26년 성장률 전망 기존 3.4%에서 3.5%로 소폭 상향

당사는 예상을 상회한 2Q 성장률을 감안하여, '26년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.4%에서 3.5%로 소폭 상향 조정한다. 반도체 수출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, 3Q부터는 고유가의 영향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. 특히, 당사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 190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, 이러한 수출 증가가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증가, 소비 및 재정 여력 확대 등으로 파급되는 경로를 예상한다. 아울러,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, 그에 따라 '27년 성장률 전망을 시장 예상(2.2%, Bloomberg)을 크게 상회하는 2.8%로 유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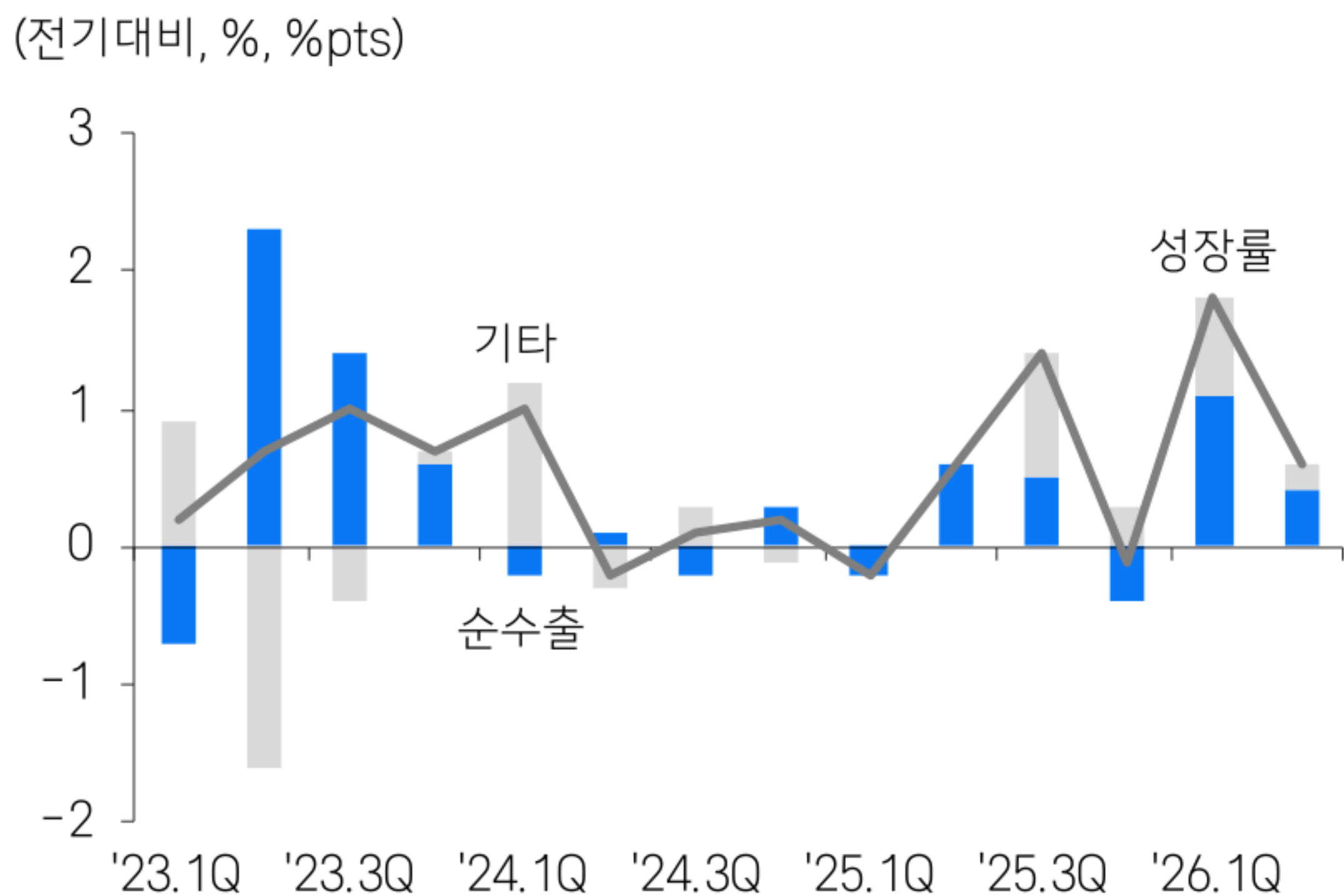
한편, 당사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전망을 내년 2Q까지 3회 인상으로 유지한다. 이는 '26년의 높은 GDP 성장률은 지난해 부진(1.1%)의 기저 효과가 있어 GDP 갭의 (+) 전환 시기를 '27년 1Q로 추정하며, 반도체 등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은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.

지출별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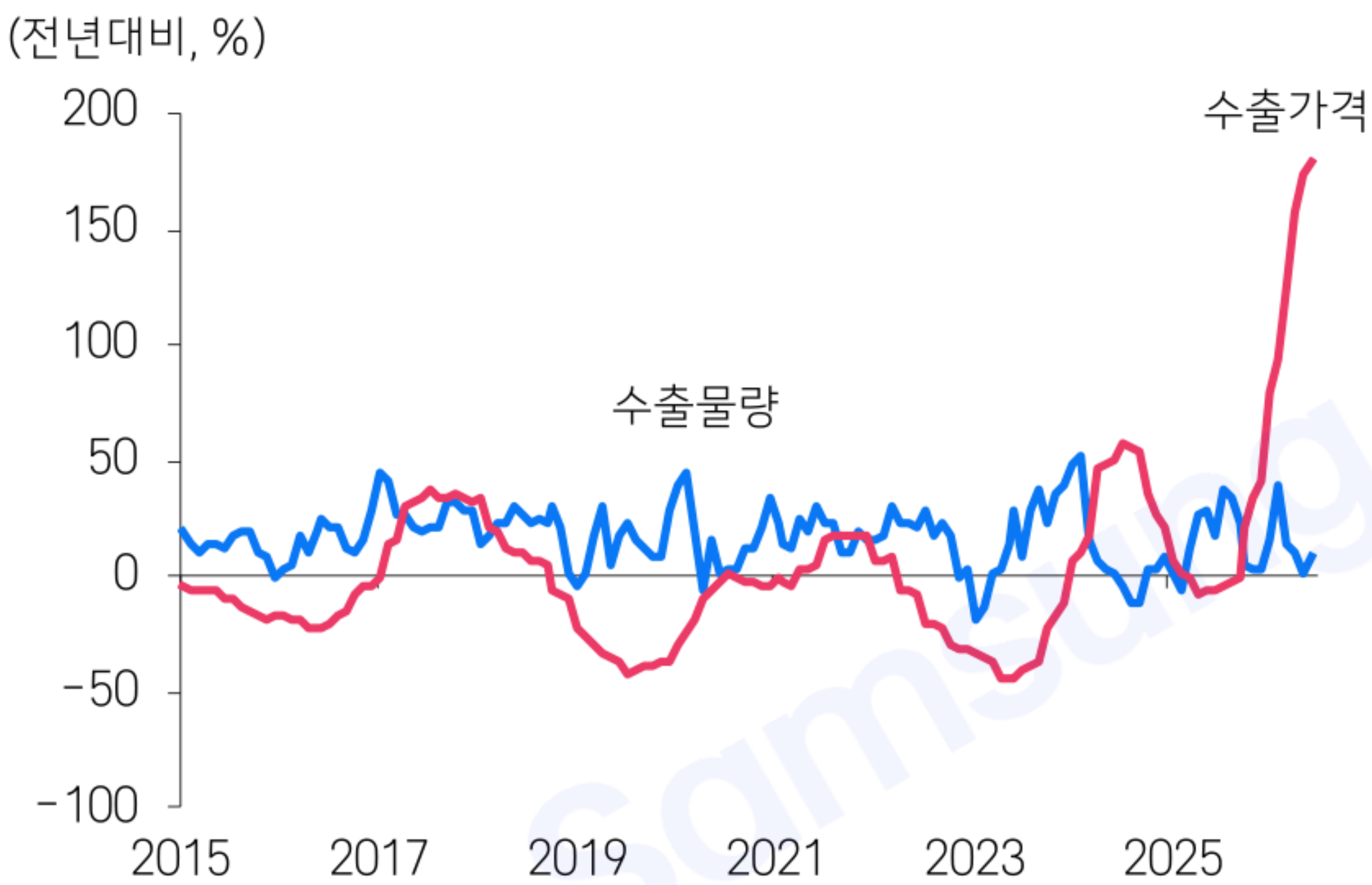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(+)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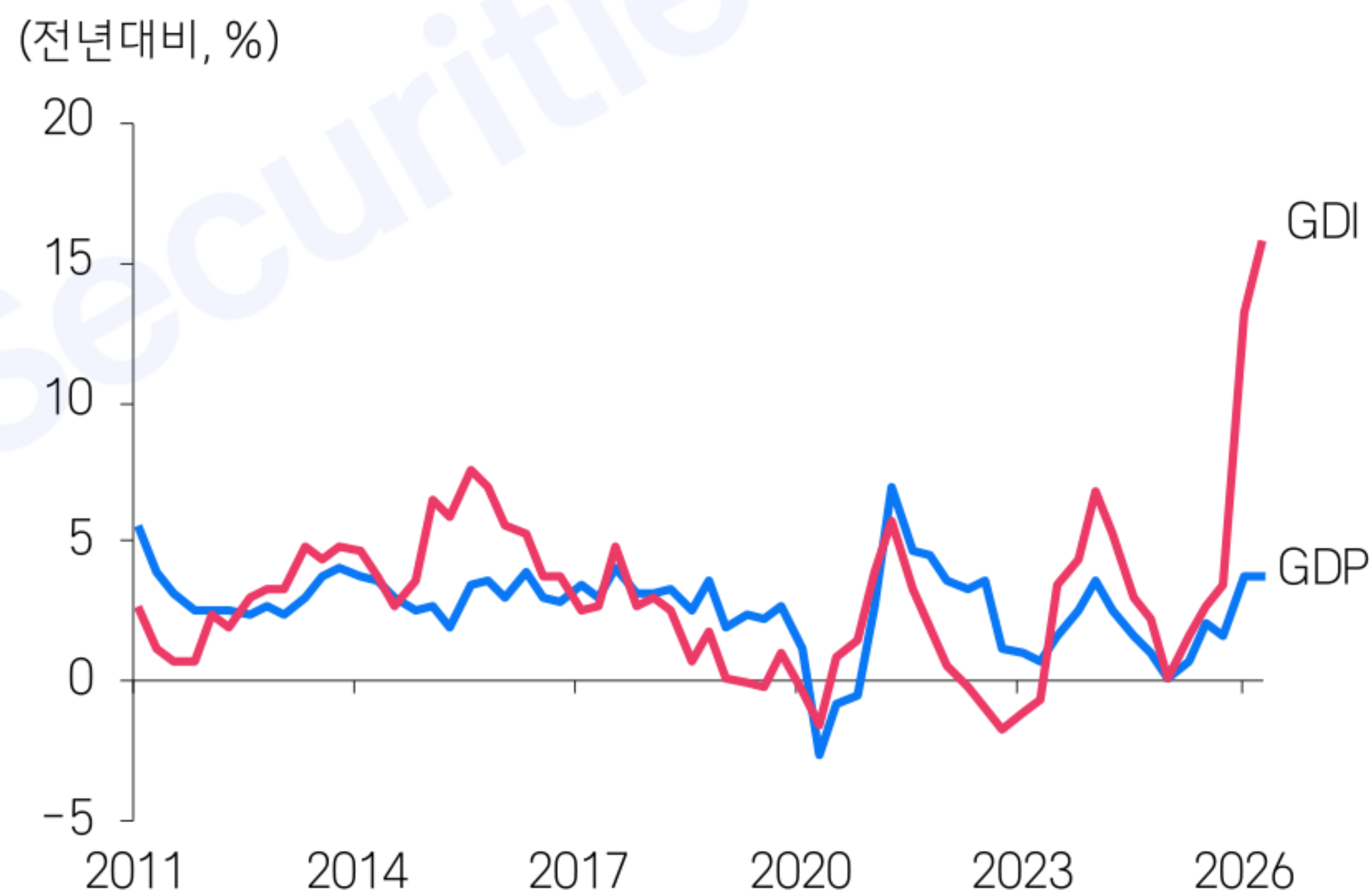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반도체 수출 증가는 가격 상승의 영향



참고: 수출가격지수는 수출금액/수출물량으로 추정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GDI 증가율은 GDP를 크게 상회


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Samsung Securiti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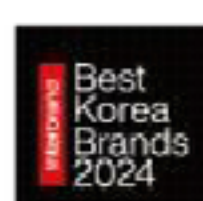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

Member of
**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**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